메리츠 금융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RA 김지원
02. 6454-4878
jiwonkim@meritz.co.kr

2022년 10월 4일 (화)

News

증시 탈출한 개미들 '뭉칫돈'…은행 예·적금에 800조 몰렸다

머니투데이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 잔액 합한 규모 총 797조 1,181억원으로 8월말 대비 28조 5,747억원 증가… 정기 예금 증가가 수신 잔액 폭증 견인
증시에서 투자 위해 머무르던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 은행 요구불예금도 예·적금으로 옮겨져… 10,11월 기준금리 오르면 추가 자금이 은행으로 더 몰릴 가능성

9월 은행채 순발행 올 최대…대출금리 '비상'

매일경제

9월 한 달간 은행들의 은행채 순발행액은 총 7조 4,600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 기록… 주로 기업대출 취급하는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발행액이 가장 많아…
최근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는 연 4%대 초중반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발행보다 유리… 또한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 영향도 존재

2년전 영끌족 '비명'…월 상환액 2배로 뛴 사례도 속출

연합뉴스

예상보다 빠른 국내외 통화 긴축으로 금리 급등흐마 ㅓ 1~2년 전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상환 부담이 불어나는 중… 이미 월 상환액 두 배 이른 사례도 존재
대출자 이자부담 급증하면 그나마 버팀목 역할해온 민간 소비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 다만 금리 상승이 소비 회복 추세 꺾을 수도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부정적 영향 우려

은행 기업대출 지난달 10조 늘어…금리 급등에 회사채 발행은 급감

한국경제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기업대출 잔액 총 692조 3,669억원으로 전월비 10조원 넘게 증가… 올 들어 본격화된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시장 얼어붙기 때문
전월 1일부터 23일까지 회사채 발행액은 2조 8,214억원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61.8% 감소…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6%로 전월비 0.34%p 상승

보험사 주담대 증가세…대출금리 고공행진에 부담 가중

아시아투데이

지난 7월말 기준 생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총 51조 8,483억원… 약관대출 등 다른 대출에 비해 올해 들어 증가세가 커… 가계 주담대 규모 증가한 영향
생보사들의 주담대 금리는 이미 6%를 넘어서… 푸본현대생명, 변동금리 기준 최고 6.29%...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자 상환 부담 커지는 중

빅테크 '보험상품 비교·추천' 허용 범위는?···보험업계 반발에 난산

서울파이낸스

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 및 추천서비스의 핵심 쟁점인 '보험상품 중 제외 상품군'에 대한 세부 논의 본격화… 다만 허용 범위 두고 업계 간 시각차 여전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 중… 보험대리점업계는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10조원 규모 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증권 유관 기관과 실무협의 및 약정 절차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에 조성 작업 마무리할 계획… 조성 규모는 10조원 수준 이중 8,800억원은 신속 투입 가능
2020년 당시 증안펀드 중 1,200억원 남아 있고 예결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7,600억원은 이미 이사회 절차 진행 중이어서 위기 빨리 오면 자금 집행 빨리할 수도…

폭락장에.. '2.5배 레버리지' CFD 확장 나선 증권사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 CFD 거래금액 21년 70조 702억원으로 빠르게 증가…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수도 해마다 증가 중…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까지 발 넓히는 중… 유진투자증권, 이달 말까지 첫 거래시 우대수수료 및 투자지원금 혜택… 다만 하락장에서 반대매매 위험성 우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